

# 바우하우스 미학으로 빚어낸 도자기 '쓰임'

이영재 작 방추항아리.  
광주신세계갤러리 제공

## 오늘부터 광주신세계갤러리

독일 자기공방 '마가레텐회에' 공방장 이영재도예가 작품 등 '방추항아리' 등 1300점 선봬

'바우하우스' 정신은 공예 부분의 장인 육성을 위해 1919년 설립된 독일의 시각·조형예술학교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기능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말한다. 재료의 진솔한 표현, 깔끔한 라인과 절제된 색채 등이 특징인 바우하우스의 미학은 20세기 모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최근의 화두인 지속가능, 친환경적, 효율성을 가치관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바우하우스의 미학으로 빚어낸 도자기를 선보이는 기획전 '쓰임(100년 공방 마가레텐회와 이영재)'을 열고 있다. 전시는 대구점을 시작으로 광주신세계, 대전신세계 A&S, 강남점으로 이어지는 순회전이다. 현재 전시는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대전신세계갤러리, 강남신세계갤러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독일 생활자기 공방 '마가레텐회에(Margaretenhohe)'의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아트마케팅을 노린 기획전이다. 마가레텐회에 공방은 미와

실용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일 '바우하우스' 정신을 계승한 곳이다.

특히 공방의 수장이 유명 도예가인 이영재 작가로 이번 전시에 의미를 더한다. 이영재 작가의 '사발', '방추 항아리' 등 70여점과 함께 이 밖에도 마가레텐회에 공방에서 선보이는 수공예 작품인 머그, 사각 접시 등 총 1300개에 이르는 다양한 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100년 공방 마가레텐회에는 1924년 독일 에센 지방에 설립된 생활자기 공방이다. 마가렛 꽃이 많은 동산이라는 뜻의 마가레텐회에는 노동자를 위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자는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실천해 왔다. 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시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던 바우하우스의 예술가들처럼, 마가레텐회에의 장인들은 아름다운 형상만큼이나, 쓰임을 고민한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 실사용에 가장 편리하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도록 표준화된 형태와 여섯 가지 유약은, 마가레텐회에 특유의 아름다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마가레텐회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현재 공방을 이끌고 있는 것은 1972년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가 도예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독보적 가치를 인정 받은 도예 작가 이영재 작가이기 때문이다. 1987년 공방의 대표가 된 그는 2006년에 공방을 완전히 인수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도자 공방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도자예술'하면, 일찍이도 자문화가 발달한 동아시아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현대 생활 자기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영재 작가와 마레텐회에는 한국의 오랜 도자 전통이 만들어낸 특유의 정서와 바우하우스적 실용미를 결합한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그래서 오래 볼수록 더욱 좋은 자기를 제작해 왔다.

이영재는 공방의 리더일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도자 예술세계를 발전시켜 온 '작가'다. 한국과 독일은 도자기의 기본 재료인 '흙'의 성질부터 시작해 제작과정과 결과물까지 서로 다른 도자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두 국가의 도자 문화의 차이와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융합한 이영재 작가의 작품들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단순한 형상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선의 차이와 유약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전달하는 '사발'과 두 개의 사발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방추항아리'는 작가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 예다.

이영재는 미학적 성취를 널리 인정받아 동양인 도예가로는 처음으로 독일 뮌헨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초대전 '1111'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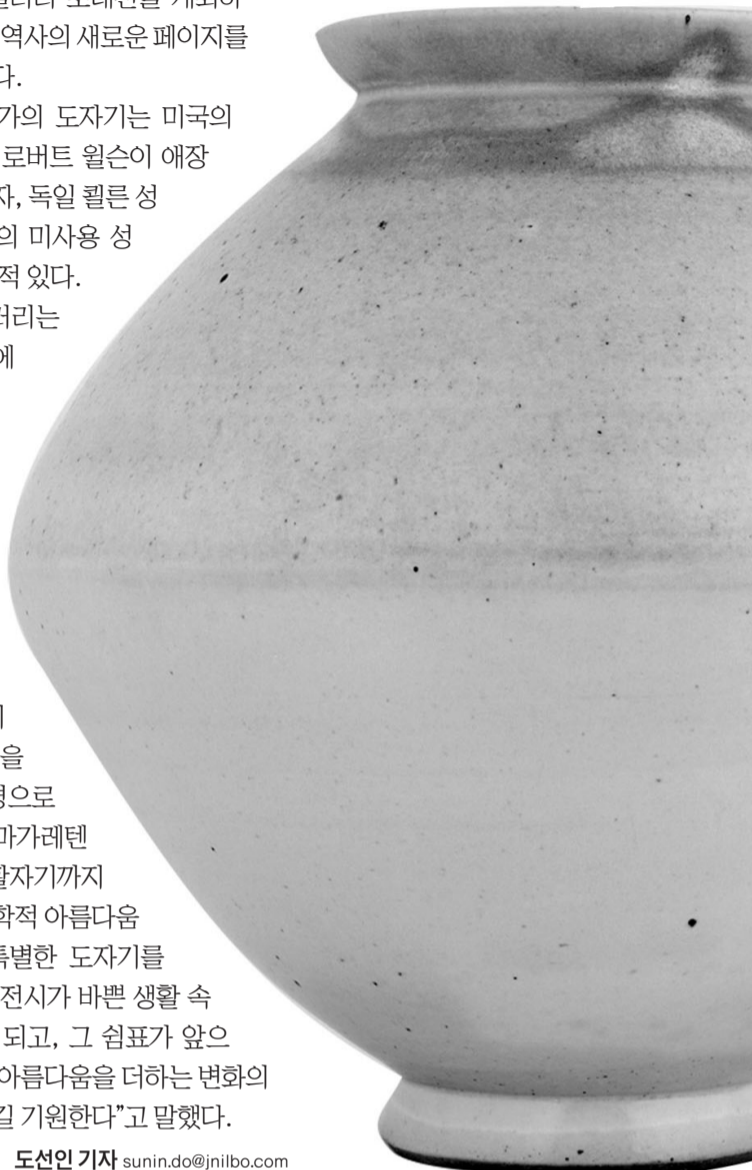
개최하고, 유럽 최대 갤러리 중 하나인 칼스텐그레브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하며 도자 예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다.

이영재 작가의 도자기는 미국의 무대 연출가 로버트 윌슨이 애장하는 그릇이자, 독일 쾰른 성 베드로 성당의 미사용 성배로 사용된 적 있다.

신세계갤러리는 "쓰는 사람에게 따라용도가 달라지는

이영재의 사발과 항아리, 그리고 고 삶의 공간을 또 다른 풍경으로 변화시키는 마가레텐 회에의 생활자기까지 실용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특별한 도자기를 만나는 이번 전시가 바쁜 생활 속 작은 쉼표가 되고, 그 쉼표가 앞으로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ilbo.com



슈레아를 찾아서 시범공연.

ACC제공

## ACC,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제작 공연을 선보인다.

ACC는 오는 5월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슈레아를 찾아서' 등 3편의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5월 4일부터 '2024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HOWFUN)' 기간을 맞아 어린이극장과 예술극장 극장2에서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과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을 5월 6일까지 공연한다.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은 우리나라 설화 속 상상의 동물인 '이무기'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뱀피 예술가 아빠들과 두 이무기의 이야기가 엮여진 유니버스 형식의 작품을 창조해냈다. 공연 관람 연령은 7세 이상이다.

ACC 이야기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을 원작으로 한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유색을 담은 창작 국악 동화극이다. 찢어진 동화책을 복구하기 위해 그 누구의 간섭 없이 떠나는 인간 '미르'와 용 '하이'의 모험 속

에서 발견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로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이어 5월 11일부터 이틀간 어린이극장에서 '슈레아를 찾아서'가 상영된다. 동명의 ACC 이야기그림책을 원작으로 아제르바이잔 출신 원작자의 자전적 경험이 담겼다. 어린이, 인형, 동물의 시선을 통해 전쟁으로 헤어진 친구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인형 '주뽀루'와 비둘기 '아그자'의 여정을 난버벌 인형·오브제극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가다.

ACC는 'ACC 어린이·청소년 공연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공연을 제작·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3편의 공연도 지난해 진행된 'ACC 어린이·청소년 공연개발' 사업의 공모와 시범공연을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및 시민평가단 의견 반영 등 1년의 창작과정을 거쳐 본 공연으로 개발됐다.

공연 당일엔 ACC 극장 로비에 공연 포스터를 활용한 색칠하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찬 수습기자**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계절글방' 봄 편 모집

### 내달 3일까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가 오는 5월 3일까지 청소년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글쓰기 동력을 키우는 '계절글방' 봄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봄 글방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5월8일 시작해 6월12일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다섯 차례 글방에 참여, 글쓰기와 합평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 1회차에는 필명 및 모임 규칙을 정하는 등 OT를 진행한다. 2~4회차에는 서로의 글을 읽고 합평하는 시간을 가진다. 5회차에는 작가 소개 글을 작성하고 작품을 마무리한다. 시·소설·에세이 등 원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완성된 작품은 삶디 블로그와 청소년 문학 플랫폼 '글틴'에 공



지난 2월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계절글방' 겨울 편 참가자들이 합평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 게재된다. 겨울 글방에서는 13명의 청소년이 26편의 작품을 창작했다.

겨울 글방 참가자 이윤하(18)씨는 "내가 쓴 시를 친구들이 다른 눈으로 해석해 주었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이라

놀라웠고, 무궁무진하게 시를 감상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우혁(20)씨는 "나의 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글 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듣고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만 15세~20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삶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삶디 관계자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합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학적 능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수습기자**

## 지역대표 소리꾼 김선이 명창 내일 공연

### 전통문화관 토요일에서 '홍보가' 판소리 고법 박시양 교수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꾼 김선이 명창이 전통문화관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친다.

광주문화재단은 2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에 김선이 명창이 '동초제 홍보가' 공연을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김선이 명창은 이날 공연에서 판소리 수궁가 중 주부모친만류 대목부터 고고천변 대목,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강남가려느디 대목부

터 노정기 대목,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부터 황성올라가는디 대목까지 전통의 멋과 흥이 배어있는 소리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박시양씨가 교수로 함께 한다.

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리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선이 명창은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김수연 명창 등으로부터 남도 판소리 전반을 이었으며 뛰어난 발성처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제25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동편제 수궁가 완창발표회 5회, 서편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5회, 동초

제 홍보가 완창발표회 6회 등 다수의 수상과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다.

내달 4일에는 상설 체험과 함께 토요일 상설공연 판소리·산조 무대로 판소리 오다나씨의 홍보가 중 홍보 놀보한테 비는 대목부터 제비 홍보집에 박씨 물고 오는 대목, 산조 원나경씨의 서용석류 해금산조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를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화·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놀이마당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전통 예술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공연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화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윤준명 수습기자**